

중장년 기술창업가의 창업 준비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홍성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김민희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국 문 요 약

체계적인 창업 준비는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장년 창업가에게 필수적이지
만, 중장년의 창업준비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장년의 창업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으나 창업준비는 대학생이나 예비창업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실제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의 다양한 창업준비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하고,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창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의 중장년 기술창업가 324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장년 기술창업
가들의 창업준비는 보통 수준으로 창업 준비 기간의 충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을 통한 준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잠
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장년 기술창업가들의 창업 준비 유형은 '전반적 부족형', '창업교육 소홀형', '포괄적 준비형'의 3개 집단
으로 나타났다.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 두려움, 창업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특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집단 별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창업교육 소홀형과 포괄적 준비형의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창업서비스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실패두려움의 경우 포괄적 준비형이 전반적 부족형과 창업교육 소홀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 창업 서비스 접근성은 전반적 부족형이 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중장년 특화 창업지원의 필요성은 모든 유
형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중장년층의 창업준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 및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에 따른 유형별 지원 제공, 둘째, 중
장년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 셋째, 청년 창업가와 다른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년 창업가 특화 교육 제공, 넷째,
창업교육을 포함한 창업준비의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장년 창업지원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중장년 창업가, 창업준비 유형, 창업준비도, 창업성과, 잠재프로파일분석

1. 서론

생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력개발이 강조
되면서 중장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장
년이 약 49세 정도에 주된 일자리에 퇴직하고 있으며, 근속
기간이 평균 1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통계청, 2022) 제2의 경
력으로 중장년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창업기업동향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40대 이상인 신규
사업체가 2016년 778,706개에서 2021년 904,413개로 16%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 창업가
의 비율은 전체 창업에서 63.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이
창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과거에 비해
창업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가의 연령이 창업 활동과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박미현·정영순, 2011; 빈봉

식·박정기, 2002; 이국노, 2020), 청년과 중장년 창업가 모두
기업가정신, 창업준비수준, 창업동기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
성들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형철 외, 2015; 양경애·하규수, 2020; 조준희·김찬중, 2015;
최인우, 2022). 이는 연령이라는 인구적 특성 외에도 혁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지, 체계적인 창업
준비 과정,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의 요인들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창업준비는 실패가능성을 낮추고 시장성 있는 비
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 창업가에게
필수적이다. 중장년 시기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동안 축적
한 자금,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게 되며, 창업에 실패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등이 청년층에 비해 부
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와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창업생태계 내 50+세대 일·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1 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spcareer@catholic.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minnhh@naver.com

· 투고일: 2023-01-10 · 수정일: 2023-02-12 · 게재확정일: 2023-02-21

창업 준비를 위해 중장년 창업가들이 필요한 창업 서비스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김내희(2020)에 따르면 중장년이 창업한 기업이 청년에 비해 창업 성과가 높지만, 창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선정률은 오히려 낮고 그 종류도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양현봉·김정호(2022a) 또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시니어 창업지원제도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 지원제도의 부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장년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중장년의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특성 및 역량의 관점에서 중장년 창업을 분석하였다(강유미·김재호, 2015; 김상수·임왕규, 2017; 박종범 외, 2020; 양경애·하규수, 2020). 상대적으로 중장년의 창업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인데, 창업교육(조운아 외, 2015), 창업동기 및 역량(양경애·하규수, 2020)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창업 준비를 분석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준비유형을 분류하는 등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중장년 창업가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확률적으로 창업 준비 유형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년 창업가들의 창업 준비 유형을 도출했으며, 추가적으로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서비스 접근성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을 통해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창업 활동 및 성과에 실질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중장년 창업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 창업의 특성

만 40세에서 만 64세 연령을 의미하는 중장년층은 본격적인 고등 교육을 받은 세대로 노년을 자기실현의 기회 또는 제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거 노인층과 큰 대조를 보인다(조경옥 외, 2011). 직장에서의 퇴직 시점이 빨라지고, 재취업은 쉽지 않지만 인간 수명의 증가로 인해 중장년층의 사회적 활동 지속, 경제적 어려움 해결, 활기찬 삶 등을 위한 창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만선, 2020).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장년의 창업은 청년의 창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창업가는 자신의 직업 경력,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에서 이점을 갖는다. 중장년 창업가는 자신의 직업

경력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김재욱, 2013; 홍성표, 2022), 직업 경험을 통해 형성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유미·김재호, 2015; 김영선, 2015). 중장년 창업가는 청년 창업가보다 직장생활이나 일생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술, 학습을 통한 경험이 더 많고, 사업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Becker, 1993; Zhang, 2008),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사업영역에서 창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hang, 2008). 2021년 산업연구원의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창업자 중 기업 경력자 비중은 84.6%로 현업에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중장년 창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중장년의 창업은 안정 지향적이며, 청년 창업에 비해 우수한 생존률과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 창업은 지금까지 보유한 재산과 퇴직금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고위험(high risk)과 고수익(high returns)을 추구하는 청년 창업과 다르게 위험을 다소 낮추더라도 사업 및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양현봉·김정호, 2022b; 강유미·김재호, 2015; 유순덕·최광돈, 2015; Autio et al., 2014). 김내희(2020)는 중장년 창업기업이 청년 창업기업보다 높은 생존률을 보이며, 고용창출 성과 기여정도, 재무적 성과에서 우수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장년 창업은 청년 창업에 비해 실패에 대한 위험성과 과장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년의 창업 실패는 자산이 되지만 중장년의 창업 실패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로 재기 불가능일 가능성이 높고, 창업자 한 명이 아닌 가정 전체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등 과장이 없다는 점에서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최양애·동학립, 2019; 김내희, 2020).

한편, 중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가 강조됨에 따라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 연구에서 중장년 창업가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양경애·하규수, 2020; 홍성표, 2022). 중장년 창업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중장년 창업가의 개인, 환경적 특성 요인들이 창업의도(강유미·김재호, 2015; 양경애·하규수, 2020; 김성식·전병훈, 2021; 이재열·하태관, 2022) 또는 창업의지(고운승, 2019; 김영태·허철무, 2021; 박종범 외, 2020; 장영미·하규수, 2018; 정종식·양동우, 2020)에 미치는 영향 등 실제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보다는 예비 창업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창업가의 특성, 지원사업 등 환경적 요인이 창업 성과(유상정·양해술, 2016; 황지영·남정민, 2019)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이후에도 성과향상과 사업지속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중장년 창업가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2.2. 창업 준비도

최근 창업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기존의 연령, 성향, 학력, 경험, 사회적 신분, 특정 욕구 등 창업가의 특성 중심의 연구에서 치밀히 계획된 행동과 의도를 통하여 창업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창업연구로 이동되고 있다(한관섭, 2012). 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발전시킨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행동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식적인 의도가 선행됨을 가정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창업 의도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를 통해 형성된 창업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실제로 창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을 의미한다. 또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이러한 행위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이다(홍성표, 2022). 계획된 행동이론의 관점에서는 창업가의 특별한 기질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창업가의 행동이나 의도에 의한 창업행동이 창업결과 또는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한관섭(2012)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창업 연구는 기업가적 결정의 의도적이고 기대 중심적이며 상황적인 성질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심의 결정론적 접근을 보완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에 대한 계획된 행동으로서 창업의도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창업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창업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기회 선택 및 보유 능력 활용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오재우, 2015), 자원은 인적자원(Human capital resources), 물적자원(Physical capital resources), 조직자원(Organizational capital resources)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Barney, 1991). 창업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자금 마련, 업종 정보와 기술의 확보, 판매전략 준비 등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성공적인 창업은 창업준비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에 정비례하게 된다(김남표·권영주, 2018; 남정민 외, 2013; 이정관, 2019). 부족한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통제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남정민 외, 2013),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최인혁, 2020).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구상에서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을 총칭하는 체계적인 창업준비(조문연, 2015)가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창업준비는 창업준비정도, 창업준비성, 창업준비특성, 창업준비과정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으며(김형민·한유진, 2022), 창업준비의 구성요소 또한 준비기간, 사업계획, 사업아이템, 교육 및 컨설팅, 창업자본 준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표 1> 참조). 창업준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김서호·변상해, 2018; 김혜화·변상해, 2018), 창업가의 창업만족도(김남표·권영주, 2018; 이경호·하규수, 2022; 한향원·하규수, 2020), 창업성과(강영욱·하규수, 2012; 김남표·권영주, 2018; 남정민 외, 2013; 서명길·박현숙, 2017; 정중희·조지운, 2015) 사업지속의도(이기만, 2018) 등의 변수들과의 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창업준비 구성요인에 따른 다양한 준비 행태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특히 실패에 대한 위험이 큰 중장년 창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창업준비가 중장년 창업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중장년의 창업준비에 대한 연구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조윤아 외(2015)는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 전후 창업관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박종범 외(2020)는 중장년의 창업교육 만족도가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장년 창업은 청년의 창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창업 이후에도 창업성과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의 창업준비 구성

연구자	구성
강순빈(2012)	사업아이템, 자금조달, 창업준비기간
강영욱·하규수(2012)	창업준비기간, 자기자본비율
김도관·진찬용(2012)	재무준비도, 내부 프로세스 준비도, 고객마케팅 준비도, 성장전략 준비도
남정민 외(2013)	업종선정, 기술력, 인력, 사업장, 자본금 확보
오재우 외(2015)	창업교육시간, 창업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
조문연(2015)	동종업경계력, 창업준비기간, 창업지원사업
박재환·인태욱(2016)	전문가상담, 사업기획, 사업계획
서명길·박현숙(2017)	교육컨설팅, 사업계획서
김남표·권영주(2018)	준비기간, 정보의 수집, 자금마련, 창업계획서
이기만(2018)	교육, 컨설팅, 경험
한향원·하규수(2020)	아이템준비, 네트워크준비, 창업팀준비
이경호·하규수(2022)	창업아이템준비, 창업팀준비

2.3. 창업 준비도와 관련 변인 간 관계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등은 창업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로 창업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창업만족은 창업자가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김경애, 2013; 이상화·하규수, 2015) 또는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창업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성과에 대한 기대 달성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한향원·

하규수, 2020) 등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 창업만족도는 창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간접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사업계속의도(한향원·하규수, 2020)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와 창업만족 간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관계가 실증되었다. 남정민 외(2013)는 창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창업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창업준비 정도가 창업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준비성이 충실할수록 비재무적 성과 및 창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한향원·하규수(2020)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창업준비 중 창업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또한 보고되었다. 이경호·하규수(2022)는 창업기업의 창업 전 창업준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창업준비,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은 모두 창업기업의 창업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체계적이고 충분한 창업준비를 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창업역량은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Klemp, 1980)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역량은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창업교육과 주로 연구되었는데,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창업가의 창업준비와 역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역량 관련 연구는 창업사전준비(김형철 외, 2015), 창업지원제도(이강현·이호택, 2019)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강현·이호택(2019)은 창업교육지원과 창업재정지원 등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가 기업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형철 외(2015)는 창업역량과 창업준비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청년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 즉, 창업사전준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창업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창업교육을 포함한 창업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창업가의 역량수준 역시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실패의 혐오적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평가적인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을 경험할 수 있는 성향으로 정의된다(Conroy & Elliot, 200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축소시키는 인지작용을 유발하여 창업의도, 유지의사 등을 비롯한 기업가적 활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업가적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수진 외 2016). 창업가의 실패두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창업준비와 유사한 창업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오상훈·하규수(2013)는 창업환경과 인식이 창업의지와외의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창업 보육제도, 창업지원제도 등 객관적 창업환경은 사업실패부담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선택업종 자신감, 마케팅 능력 자신감, 자금조달 능력 자신감, 사업운용 자신감 등의 주관적 환경인식은 사업실패부담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경숙(2015)은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 경영자 환경,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 내부 환경, 조직 외부 환경 등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창업가의 창업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을수록,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창업가가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창업준비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부분 대학생이나 예비창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창업가의 창업준비 정도나 유형에 따른 창업성과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행태에 따른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창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서 창업을 한 40대 이상의 중장년 창업가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장년 창업가로 한정하였으며, 생계형 창업이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업 기업은 세부적으로 기술 및 전문서비스업이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 새롭게 창업한 사업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신규 사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 중 창업가의 연령이 40~60대인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였으며, 조사원이 중장년 창업가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4명의 중장년 창업가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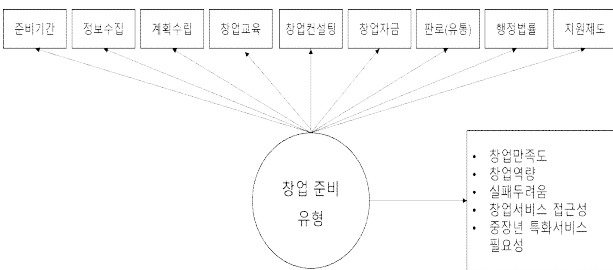
3.2. 연구모형

이 연구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준비 수준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창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창업 준비수준에 대한 잠재계층을 도출했으며, 이후 3단계 방법을 활용하여 유형별 창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 두려움, 창업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특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해 창업 준비수준의 하위요인들을 창업 준비기간, 창업 정보수집, 창업 계획수립,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판로 준비(유통), 행정 및 법률, 지원제도 활용으로 구분했으며, 이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창업자의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남표·권영주, 2018; 한향원·하규수, 2020)와 창업환경 및 준비수준이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송경숙, 2015; 오상훈·하규수, 2013), 창업역량과 사전준비가 창업성가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형철 외, 2015) 등을 바탕으로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창업 준비 유형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중장년 창업가들이 인식하는 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특화 지원 필요성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확인된 유형들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3. 측정도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활용한 창업 준비 수준은 강순빈(2012), 이길형(2009), 송광선(2000) 등의 연구에서 활용된 창업 준비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창업 준비의 문항들은 준비기간, 정보수집, 계획수립, 창업교육, 창업자금 등 9개이며, Likert 5점 척도이다(예: 나는 창업을 위한 초기 창업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등). 이 연구에서 창업 준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798이었다. 창업만족도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소득, 업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안정성 6개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0.828이었다. 창업역량은 김중진(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자원, 재무자원,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인 역량 인식을 측정하는 형태이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0.780이었다. 창업에 대한 실패 부담감은 기홍석(2020)의 도구를 활용했으며, 투자자금, 가

정, 재기,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창업 실패 시 두려움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Cronbach α 0.883이었다. 창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기업가정신, 창업투자, 창업공간, 경영컨설팅,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 5점이며, 신뢰도는 Cronbach α 0.959이었다. 중장년 특화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은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외 성별, 연령, 업종, 업력, 과거 창업경험, 학력 등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3.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속형 변인으로 구성된 요인들의 잠재집단을 도출하는데 활용되는 혼합모형으로 관찰 변인의 패턴이 기준이 된다. 군집 분석이 이론을 바탕으로 예상 군집 수를 지정하거나 임의적인 기준 점수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확률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정 집단 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노연경 외, 2014). 또한 특정 표본이 한 집단에만 소속된다고 가정하는 군집분석과는 다르게 집단에 속할 확률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단을 결정하는 형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변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변수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적 접근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정보지수를 통해 적정 집단 수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는데, 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활용하며, 이 연구에서도 위 지수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정 잠재집단 수는 정보지수의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통해 적정 잠재계층 수를 판단할 수 있다(김영서·홍세희, 2021).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상대 모형적합도를 유의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의 검증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분석에 적절한 잠재계층 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 분류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한 뒤 유형에 따른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 두려움, 창업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특화 창업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집단 도출의 기준이 되는 변인들만 투입하여 기본모형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사후확률분포를 통해 표본별 소속 집단을 도출한다. 이후 분류 오류를 반영하여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Asparouhov & Muthen, 2014). 이 연구에서는 BCH 방법을 통해 집단간 연속형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Mplus 8.3을 사용했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기준을 적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 및 변인의 주요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중장년 남성 창업자가 268명(82.7%), 여성 창업자 56명(17.3%)으로 남성의 비율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40대 182명(56.2%), 50대 121명(37.3%), 60대 21명(6.5%)으로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창업한 기업의 업종은 서비스업 153명(47.2%), 정보통신업 102명(31.5%), 제조업 69명(21.3%)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비율이 높았다. 창업한 기간은 2~3년 미만인 114명(35.2%), 1~2년 미만인 104명 32.1%, 1년 미만 71명(21.9%), 3년 이상 35명(10.8%)으로 기업을 설립한지 3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중장년 창업가로서 과거에 창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7명(45.4%), 경험이 없는 응답자 177명(54.6%)으로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 21명(6.5%), 전문대졸 35명(10.8%), 대졸 201명(62.0%), 대학원 이상 67명(20.7%)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약 80% 정도였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68
	여성	56
연령	40대	182
	50대	121
	60대	21
업종	제조업	69
	정보통신업	102
	서비스업	153
업력	1년 미만	71
	1~2년 미만	104
	2~3년 미만	114
	3년 이상	35
과거 창업 경험	있음	147
	없음	177
학력	고졸 이하	21
	전문대졸	35
	대졸	201
	대학원 이상	67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활용된 창업 준비수준의 전체 평균은 3.41로 척도의 중간값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세부적으로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3.74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준비 수준을 보인 요인은 창업교육으로 평균 1.40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창업교육을 통한 준비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만족도는 평균 3.38, 창업역량 평균 3.65로 중장년 창업가가 인식하는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3.47로 창업역량 및 만족도와 비교하여 낮지 않았는데, 중장년 창업가로서 창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공에 대한 불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2.91로 낮은 편이었으며, 중장년에게 특화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 인식 수준은 평균 3.94로 높은 편이었다.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1	0.507
창업 준비기간	3.74	0.795
정보수집	3.70	0.806
창업 계획수립	3.60	0.814
창업 교육	1.40	0.960
창업 컨설팅	2.97	0.944
창업 자금	3.05	0.844
판로 준비	3.51	0.857
행정 및 법률	3.38	0.845
지원제도	3.13	1.038
창업 만족도	3.38	0.612
창업역량	3.65	0.600
실패두려움	3.47	0.793
창업서비스 접근성	2.91	0.755
중장년 특화 서비스 필요도	3.94	0.763

다음으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 및 인식간 특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위값을 기준으로 상, 하로 구분하여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서비스 접근성은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보다 접근성의 차이가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며, 중장년 특화서비스 필요도와 함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창업 준비기간과 정보수집, 창업계획수립, 창업자금, 유통, 행정 및 법률에 대한 준비 수준이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지원제도 활용과 창업 교육 수준은 이들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창업 준비요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적자본론에 기초하여 해석해보면, 창업준비는 중장년 창업가의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창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높은 인적자본의 축적은 창업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4> 참조).

<표 4> 창업 준비 수준에 따른 결과변수 차이 분석

변인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창업 준비기간	저수준	3.26	3.42	3.50
	고수준	3.44	3.78	3.46
	t	-2.673*	-5.215***	0.374
정보수집	저수준	3.21	3.37	3.46
	고수준	3.48	3.82	3.48
	t	-4.163***	-6.907***	-0.226
창업 계획수립	저수준	3.20	3.41	3.49
	고수준	3.50	3.82	3.46
	t	-4.440***	-6.433***	0.358
창업 교육	저수준	3.37	3.65	3.50
	고수준	3.42	3.64	3.29
	t	-0.614	0.114	1.810
창업 컨설팅	저수준	3.38	3.61	3.46
	고수준	3.37	3.78	3.49
	t	0.127	-2.254*	-0.316
창업 자금	저수준	3.34	3.59	3.46
	고수준	3.50	3.83	3.48
	t	-2.113*	-3.119**	-0.201
판로 준비	저수준	3.25	3.47	3.55
	고수준	3.48	3.79	3.41
	t	-3.446**	-4.821***	1.534
행정 및 법률	저수준	3.31	3.54	3.52
	고수준	3.45	3.78	3.41
	t	-2.072*	-3.547***	1.168
지원제도	저수준	3.36	3.61	3.5
	고수준	3.41	3.72	3.42
	t	-0.712	-1.624	0.910

주) * p<0.05, ** p<0.01, *** p<0.001

4.2. 중장년 창업 준비 유형화 및 특징 분석

4.2.1. 중장년 창업 준비 유형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정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2개 계층에서 시작하여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와 상대모형 비교, 엔트로피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적절한 계층 수를 확인하였다. 특히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의 감소치와 함께 LMR LRT, BLRT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유의한 적정 집단을 도출하였다.

<표 5> 중장년 창업가 창업준비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결과

분류기준		잠재계층			
		2	3	4	5
정보지수	AIC	7026.47	6587.94	6318.99	6073.08
	BIC	7132.33	6731.61	6500.47	6292.36
	SABIC	7043.52	6611.08	6348.22	6108.39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	0.013	0.083	0.492
	BLRT	0.000	0.000	0.000	0.000
분류 질	Entropy	0.824	0.911	0.928	0.942
표본수 및 분류율	집단1	140(43.21%)	123(37.96%)	124(38.27%)	118(36.42%)
	집단2	184(56.79%)	155(47.84%)	154(47.53%)	8(2.47%)
	집단3		46(14.20%)	23(7.10%)	152(46.91%)
	집단4			23(7.10%)	23(7.10%)
	집단5				23(7.10%)

2~5개 잠재계층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보지수는 잠재계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잠재계층이 3개일 때 지수의 감소 폭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LMR LRT가 잠재계층 3개일 때까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4개 집단대비 3개 집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엔트로피의 경우에도 잠재계층이 3개일 때 0.911로 높은 분류의 질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잠재계층이 3개일 때 개별 집단의 표본 수가 5% 이상으로 집단 간 적절한 표본 분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계층별 창업 준비 수준

구분	전반적 부족형 (집단1)	창업교육 소홀형 (집단2)	포괄적 준비형 (집단3)	F
창업 준비기간	3.22(0.784)	4.14(0.575)	3.78(0.664)	64.348***
정보수집	3.74(0.795)	4.06(0.681)	3.89(0.605)	59.427***
창업 계획수립	2.97(0.735)	4.02(0.575)	3.85(0.631)	94.441***
창업 교육	1.06(0.233)	1.01(0.080)	3.63(0.711)	1415.448***
창업 컨설팅	2.38(0.763)	3.32(0.867)	3.35(0.849)	50.009***
창업 자금	2.51(0.740)	3.45(0.713)	3.15(0.729)	57.965***
판로 준비	2.89(0.808)	3.93(0.625)	3.76(0.673)	76.872***
행정 및 법률	2.78(0.741)	3.83(0.646)	3.50(0.723)	78.424***
지원제도	2.64(0.976)	3.42(0.986)	3.43(0.886)	24.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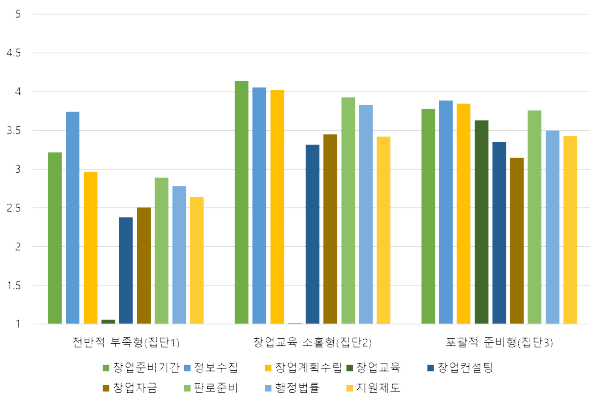
주) * p<0.05, ** p<0.01, *** p<0.001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계층별 창업 준비 요인별 수준과 특징을 비교하여 적절한 집단명을 부여하였다. 먼저 집단 1은 집단 2와 3과 비교하여 창업 준비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창업 정보수집이 평균 3.74로 약간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고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판로준비, 행정 및 법률, 지원제도 전반에 걸쳐 준비 수준이 3점 이하의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창업 준비 수준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 1을 ‘전반적 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창업 준비에 대한 유형화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

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진로 및 취업준비 등을 유형화한 연구들을 보면, 특정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반적으로 요인 수준이 높거나 낮은 수준 등의 집단들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홍소정·이운수, 2021).

다음으로 집단 2는 창업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 3점 후반의 높은 창업 준비 수준을 보였으며, 집단 3과 비교했을 때 창업 준비기간, 정보수집, 계획수립, 창업자금 등의 측면에서 더 높은 준비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준비 수준을 보였는데, 창업 과정에서 창업교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1도 창업교육에 대한 수준이 낮지만, 다른 요인들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집단 2는 창업교육을 제외하고는 다른 준비 요인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 인식이 특별히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집단 2를 ‘창업교육 소홀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일부 요인이 집단 2보다 낮은 측면이 있지만, 창업교육을 포함하여 대부분 요인에서 창업 준비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집단 3을 ‘포괄적 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집단간 표본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3에 전체 표본의 14.2%만 포함되어,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중장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계층별 창업 준비 수준

4.2.2.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별 특징 분석

다음으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이들의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창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창업만족도의 경우 포괄적 준비형 3.51, 창업교육 소홀형이 3.48로 전반적 부족형의 3.21보다 유의미하게 창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교육 소홀형이 창업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창업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중

장년 창업가가 그렇지 않은 중장년 보다 창업 이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중장년 창업가가 인식하는 창업역량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창업교육 소홀형 3.84, 포괄적 준비형이 3.75로 전반적 부족형의 3.3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 준비 수준이 높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역량 자체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전반적 부족형이 3.57, 창업교육 소홀형이 3.49로 포괄적 준비형의 3.1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포괄적 준비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소홀형도 포괄적 준비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만족도와 역량 인식 수준이 높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포괄적 준비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이는 여러 영역에서 체계적인 창업 준비가 중장년 창업가의 심리적인 자신감과 기대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준비가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포괄적 준비형 3.10, 창업교육 소홀형 2.97, 전반적 부족형 2.76으로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이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창업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전반적 부족형에 포함된 중장년 창업가들이 창업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활용 의지가 낮아서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년 창업가들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창업 지원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의 창업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높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균값은 포괄적 준비형이 3점 초반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창업가 내에서 여러 형태의 준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창업서비스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년 창업가들의 특화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포괄적 준비형 4.07, 창업교육 소홀형과 전반적 부족형이 모두 3.92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중장년 창업가 모두 중장년에게 특화된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중장년 창업가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표 7>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집단별 창업 관련 변인들의 차이 분석 결과

변인	집단	평균(표준오차)	χ^2	사후분석
창업만족도	전반적 부족형(a)	3.21(0.056)	14.106***	b, c > a
	창업교육 소홀형(b)	3.48(0.050)		
	포괄적 준비형(c)	3.51(0.094)		
창업역량	전반적 부족형(a)	3.39(0.052)	37.362***	b, c > a
	창업교육 소홀형(b)	3.84(0.050)		
	포괄적 준비형(c)	3.75(0.076)		
실패두려움	전반적 부족형(a)	3.57(0.081)	7.924*	a, b > c
	창업교육 소홀형(b)	3.49(0.061)		
	포괄적 준비형(c)	3.18(0.115)		
창업서비스 접근성	전반적 부족형(a)	2.76(0.081)	7.327*	b, c > a
	창업교육 소홀형(b)	2.97(0.056)		
	포괄적 준비형(c)	3.10(0.101)		
중장년 창업지원 필요성	전반적 부족형(a)	3.92(0.069)	1.517	-
	창업교육 소홀형(b)	3.92(0.067)		
	포괄적 준비형(c)	4.07(0.108)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들의 창업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창업 준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중장년 창업가 유형을 전반적 부족형, 창업교육 소홀형, 포괄적 준비형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잠재집단 별 창업 관련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창업교육 소홀형, 포괄적 준비형의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창업서비스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두려움의 경우 포괄적 준비형이 전반적 부족형과 창업교육 소홀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잠재집단에서 중장년에게 특화된 창업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의 창업에서도 창업 준비가 성공적인 창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창업 준비도 수준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성과의 한 차원으로서 사업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만족도(박정식·김재태, 2019; 이중성 외 2017)의 경우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의 창업 이후 만족도가 창업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반적 부족형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남정민 외, 2013; 김남표·권영주, 2018; 한향원·하규수, 2020; 이경호·하규수, 2022)를 지지한다. 즉, 창업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이후의 창업 만족도가 높으며, 높은 창업 만족도는 창업가의 사업지속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창업역량(Chandler & Jansen, 1992) 역시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에 속하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역량이 전반적 부족형에 속하는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창업에 필요한 역량들은 창업가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장영미·하규수, 2018),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가의 창업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실패두려움의 경우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준비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나타났는데, 포괄적 준비형은 창업준비 영역에서 창업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준비도가 높은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준비와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김도관·진찬용, 2012; 김서호, 변상해, 2018)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고(박종범 외, 2020), 창업에서 실패한 이후 기업 회생 비용 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실패 후유증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하규수, 2012) 중요하다. 다만, 창업교육 횟수(박주환·강민수, 2016)나 단순 교육 여부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참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실패 두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실패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창업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년 창업서비스 접근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 부족형의 중장년 창업가가 인식하는 창업서비스 접근성 수준이 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중장년은 청년에 비해 온라인 정보 탐색 능력이 부족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창업 지원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운 창업환경(홍성표, 2022)에 따른 접근 기회의 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제도라 하더라도 창업자의 법률 및 행정 제도 접근성에 따라 창업지원제도의 수용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제도 활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창업준비의 질적 양적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남정민 외, 2013)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박재환·안태욱(2016)은 창업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창업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등 높은 수준의 창업준비와 창업서비스 접근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장년 창업지원 필요성에 대해 전체 창업가는 중

장년 창업에 대한 특화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대부분이 39세 미만 청년 창업자에 편중되어 있어 중장년 창업가는 상대적으로 창업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정현태, 2018), 사업 수혜율도 청년 창업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현실(김내희, 2020)에 대한 중장년의 인식을 반영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준비로서 자금에 대한 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오재우 외, 2015; 박주환·강만수, 2016; 이경호·하규수, 2022), 시니어 기술창업의 경우 퇴직금 등 자기 자금이 46.1%로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엔젤·벤처캐피탈 등 벤처자금 활용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양현봉·김정호, 2022b), 창업성공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자금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포함한 중장년 창업준비를 위한 특화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5.2. 제언

중장년 기술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중장년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의 창업준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에 따른 유형별 지원이 요구된다. 창업성과와 창업 유지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사업의 수와 규모가 청년층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대상 특화 사업의 확대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장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내실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준비의 전 영역에서 충분히 준비된 창업가 유형의 비중도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장년 창업가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창업준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창업준비 정도에 따른 중장년 창업가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유형이 인식하는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서비스 접근성 등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준비도 유형에 따른 집단별 필요 지원과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 창업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금 확보, 아이템 준비 등 다른 영역에서의 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장년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K-Stratup과 같은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년 창업가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창업진흥원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소개 페이지(창업진흥원, 2023)에서는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K-Startup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35개 지역 기술창업센터의 주소와 연락처만 제공하고 있어, 중장년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나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K-Startup에서는 중장년 대상 사업은 만40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으로 검색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 대학생 등의 대상 구분에서 중장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중장년의 창업 지원 정책, 사업, 교육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K-Startup 내 별도의 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이 청년층보다 다소 부족한 중장년의 창업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예비창업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발굴하고 있는 등 발굴과 홍보활동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나 은퇴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년 창업가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중장년 창업은 청년 창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창업과정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창업준비의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대한 지원, 창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창업자 역량 향상을 위한 창업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 이후의 실패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의 요인으로 창업가에게 적절한 전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다만, 자신의 이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고, 실무적이고 현장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중장년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준비도 수준을 반영한 중장년 대상의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 창업가 뿐만 아니라, 이미 창업을 한 이후의 중장년 창업가들도 기존 경영자에 비해 부족한 기업운영 경험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창업 이후 사후관리 등의 차원에서 교육과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은 창업준비의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준비 수준을 영역별로 확인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업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수행되지 못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유형화한 포괄적 준비형은 타 유형보다 창업교육 참여가 높은 집단으로, 실패두려움이 타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업교육 참여 고/저 집단 간 실패두려움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창업준비 요인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창업 준비요인별 상호작용 효과를 다른 통제 변인 없이 확인한 결과,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과 정보, 교육, 판로, 사업계획 요인들의 상호작용항이 창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며, 창업교육과 지원제도의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창업 지원 요소들이 결합하여 창업만족도 등의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구명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었으나, 중장년 창업가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창업동기와 창업활동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중장년이라는 집단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창업동기, 창업준비수준, 창업성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

강순빈(2012).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사전 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영욱·하규수(2012).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 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0(9), 239-251.

강유미·김재호(2015). 중장년층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자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0(3), 25-49.

고운승(2019). 융복합시대에 중장년층의 성격 5요인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37(1), 1-12.

기홍석(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김경애(2013). *소상공인의 심리적특성, 창업가정신, 창업만족, 창업추진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저트 카페 창업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김남표·권영주(2018).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 사회적지지, 정부의 창업컨설팅 지원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3), 94-118.

김내희(2020). *창업 성과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창업지원의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김도관·진찬용(2012). 소상공인들의 BSC기반 창업 준비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4), 113-122.

김상수·임왕규(2017).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 101-115.

김서호·변상해(2018).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규범과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1), 11-21.

김성식·전병훈(2021). 기업가정신이 과업도전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와 Hayes의 검증 방법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15(1), 54-74.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김영태·허철무(2021).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

업연구, 16(2), 109-121.

김영서·홍세희(2021).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벤처창업연구*, 16(1), 37-53.

김영선(2015).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나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재욱(2013). *창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년층과 시니어층의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종진(2020). *시니어창업 기업의 사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형민·한유진(2022). 소상공인 창업준비도와 창업성과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기업과학신연구*, 45(1), 69-86.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김혜화·변상해(2018).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5), 17-28.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생존에 대한 종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27-43.

노연경·정송·홍세희(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박미현·정영순(2011). 중고령자 창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38(4), 165-189.

박재환·안태욱(2016).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1), 39-47.

박정식·김재태(2019). 점포 운영환경과 사업지속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7(3), 19-37.

박종범·양영석·김명숙(2020).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285-301.

박주환·강만수(2016). 소상공인 창업준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성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9(3), 31-46.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135-158.

서명길·박현숙(2017). 창업성공요건과 창업준속요건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3), 116-148.

송경숙(2015).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5(2), 393-407.

송광선(2000).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회*, 3(1), 71-103.

양경애·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45-55.

양현봉·김정호(2022a).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베이비부머의 기술창업 촉진을 중심으로. *iKITE 산업경제이슈*, 136(2022-10), 1-12.

양현봉·김정호(2022b).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발전과제 -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오상훈·하규수(2013).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143-157.

오재우·이동형·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중심. *벤처창업연구*, 10(4), 67-80.

유상정·양해술(2016). 시니어 창업의사결정유형과 창업지원사업이

-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106-121.
- 유순덕·최광돈(2015). 시니어 기술창업을 위한 CBI 추진방안 연구-핀란드 브릿지 프로그램 기반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11), 1-10.
- 이강현·이호택(2019).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기업역량 그리고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설립연구*, 19(1), 43-55.
- 이경호·하규수(2022). 창업준비,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333-342.
- 이국노(2020). 대표자의 연령이 창업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기만(2018).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 준비성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길형(2009). 소규모 지식기업의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6(3), 143-162.
-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재열·하태관(2022). 시니어의 성장·고정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6), 89-104.
- 이정관(2019). 전통시장 청년몰 청년 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질적·양적 통합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이종성·임영희·김태희(2017). 외식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0(1), 1-27.
- 장영미·하규수(2018).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3), 13-36.
- 정중식·양동우(2020). 중장년층의 자립욕구, 창업성공가능성, 고용안정성이 Pull-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Push-창업의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2(3), 221-243.
- 정중희·조지운(2015). 소상공업의 경영자 자질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0(1), 137-161.
- 정현태(2018). 숙련창업 기업 지원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연구*, 38(2), 111-134.
- 조경옥·이중섭·박신규(2011).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부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35(-), 1-16.
- 조문연(2015). 기술창업기업대표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술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조윤아·박민규·문윤걸(2015). 창업교육 전후 창업인식에 관한 연구: M대학교 시니어창업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1), 433-446.
- 조준희·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창업진흥원(2023).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안내*. Retrieved (2023.02.19.) from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3060000>.
- 최양애·동학립(2019). 시니어의 개인 및 사회적 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6(3), 91-109.
- 최인우(2022).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구조적 관계. *벤처창업연구*, 17(5), 169-185.
- 최인혁(2020). 유통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 동기에 따라. *유통경영학회지*, 23(6), 19-30.
- 통계청(2022.0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계청,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211>.
-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5), 59-74.
- 한관섭(2012). *신생 창업동기와 성장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한만선(2020). *중장년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사회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한향원·하규수(2020).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5), 77-98.
- 홍성표(2022). 중장년의 창업 결정 및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7(2), 1-27.
- 홍성표·김민희(2021). *창업생태계 내 50+세대 알 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홍소정·이윤수(2021). 청소년기 진로 성숙도의 중단적 변화 연구: 고등학교 유형별 다집단 잠재 성장 모형 분석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22(4), 745-767.
- 황지영·남정민(2019). 한국, 일본, 싱가포르 시니어 창업가의 기회형 창업수준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271-29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sparouhov, T., & Muthen, B.(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 Autio, E., Rannikko, H., Handelberg, J., & Kiuru, P.(2014). *Analyses on the Finnish High-Growth Entrepreneurship Ecosystem*. Finland: Alto University Publication Series Business+Economy.
- Barney, J.(1991). Special Theory Forum the Resource-based Model of the Firm: Origins, Implication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7(1), 97-98.
- Becker, G.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gman, L. R., & Magnusson, D.(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in, B. S., & Park, J. K.(2002).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4(3), 135-158.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o, J. H., & Kim, C. J.(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 Resources Development*, 18(4), 53-75.
- Cho, K. Y., Lee, J. S., & Park, S. K.(2011). The Rise of Baby Boomers,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Government Policy Paradigm.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35(-), 1-16.
- Cho, M. Y.(2015).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EO'S Preparation and the R&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ies: Focus 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s Modified Effec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Choi, I. H.(2020). Influence of Small Retailers' Start-Up Preparations on Business Performance: Start-Up Motivation.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3(6), 19-30.
- Choi, I. W.(202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Middle-aged Elderly Office Work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5), 169-185.
- Choi, Y. A., & Dong, H. L.(2019). The Impact of Personal and Social Preparation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6(3), 91-109.
- Conroy, D. E., & Elliot, A. J.(2004). Fear of Failure and Achievement Goals in Sport: Addressing the Issue of the Chicken and the Egg.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17(3), 271-285.
- Ha, K. S.(2012).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9(5), 59-74.
- Han, H. W., & Ha, K. S.(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scent Entrepreneurs Motivation and Preparation on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5), 77-98.
- Han, K. S.(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Nascent Start-up Motivations and Growth Intention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Han, M. S.(2020). *The Impact of Middle-aged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Ability and Social Capital on the Start-Up Intention: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 and the Moderate Effect of Start-Up Support Servi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 Hong, S. J., & Lee, Y. S.(2021). An Examination of Longitudinal Changes in Career Maturity in Adolescence Using a 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 by Type of High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22(4), 745-767.
- Hong, S. P.(2022). A Qualitative Study on Start-up Decisions and Processes of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7(2), 1-27.
- Hong, S. P., & Kim, M. H.(2021). *50+ Generation Work and Activities in the Start-up Ecosystem and Policies to Support Start-ups*. Seoul: Seoul 50 Plus Foundation.
- Hwang, J. Y., & Nam, J. M.(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Opportunity Level of Senior Entrepreneurs on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 Japan and Singapore : Moderating Effect of the Government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6), 271-294.
- Jang, Y. M., & Ha, K. S.(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3), 13-36.
- Jo, Y. A., Park, M. K., & Moon, Y. G.(2015). A Study on Recognition for Foundation Before and After Foundation Education-Focused on the case of senior foundation education in M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433-446.
- Jung, H. T.(2018). A study on the Support of Skille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E Finance*, 38(2), 111-134.
- Jung, J. S., & Yang, D. W.(2020). The Effects of Desire for Independenc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and Employment Stability to Pull-entrepreneurship in the Middle Ag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ush-entrepreneurship.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42(3), 221-243.
- Jung, J. H., & Cho, C. W.(2015).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Qualities and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Enterpris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0(1), 137-161.
- Kang, S. B.(2012). *Report on Corporation Performance Influenced by Entrepreneur's Motive, Entrepreneurship, and Advanced Preparati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ang, Y. M., & Kim, J. H.(2015). Study on the Exploration of Influencing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Middle-Aged and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0(3), 25-49.
- Kang, Y. W., & Ha, K. S.(2012).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239-251.
- Korea Start Up(2023). *Center for Middle-Aged Tech Entrepreneurship Project Information*. Retrieved(2023.02.19.) from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3060000>.
- Ki, H.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Efficacy and the Business Failure Burde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Kim, D. G., & Jin, C. Y.(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SC Based Four Perspectives of Prepara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for Small Businesses. *Asia-Pacific Journal*

-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4), 113-122.
- Kim, H. C., Lim, A. R., & Kim, G.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8(2), 27-58.
- Kim, H. M., & Han, Y. J.(2022). The Structural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Readiness and Startup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Journal of Corporation and Innovation*, 45(1), 69-86.
- Kim, H. W., & Byun, S. H.(2018). The Effect of Hope-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 on a Start-u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5), 17-28.
- Kim, J. J.(2020).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enior Entrepreneurship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J. W.(2013). *A Study on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Intention for Business Start-up: Focused on Intergenerational Moderating Effects between Youths and Senio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K. A.(2013). *A Study on Relations among Small Business Person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a Entrepreneurial Recommendation Intention: Focusing on Entrepreneurs of Eessert Café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 Kim, N. H.(2020). *A Feasibility Study of Senior Entrepreneurs Support Focused on Performa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Kim, N. P., & Kwon, Y. J.(2018). An Examin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Start-up Readiness, Social Support, Government Start-up Consulting, an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3), 94-118.
- Kim, S. C., & Jeon, B. H.(2021).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by Mediating Goal Difficulty: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Method of Baron & Kenny and Hayes. *The Credit Card Review*, 15(1), 54-74.
- Kim, S. H., & Byun, S. H.(2018). The Effect of Pre-entrepreneur's Individual Norm and Start-up Preparation Level on a Start-up Intention: Focusing on a Moderation Effect in Start-u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11-21.
- Kim, S. J., Han, J. H., & Lee, S. M.(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 Kim, S. S., & Lim, W. K.(2017).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01-115.
- Kim, Y. S.(2015). *The Effects of Potential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 and Environment Factor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Y. S., & Hong, S. H.(2021).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Job Satisfaction of Youth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1), 37-53.
- Kim, Y. T., & Heo, C. M.(2021).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2), 109-121.
- Klemp, G. O.(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Washington D.C.: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Ko, Y. S.(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Factors of the Middle-Aged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Era of Convergence.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7(1), 1-12.
- Korea Start Up(2023). *Center for Middle-Aged Tech Entrepreneurship Project Information*. Retrieved(2023.02.19.) from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3060000>.
- Lee, G. H.(200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Small Knowledge-based Firm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6(3), 143-162
- Lee, G. H., & Yi, H. T.(2019).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s on Entrepreneurship. *Corporate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19(1), 43-55.
- Lee, G. M.(2018). *Influence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edness on Business Continui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J. K.(201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Young Entrepreneurs in Traditional Market Youth Mall -Combining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 Lee, J. S., Lim, Y. H., & Kim, T. H.(2017). The Effect of Food Servic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Food Service Busines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20(1), 1-27.
- Lee, J. Y., & Ha, T. K.(2022).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s' Growth-Fixed Mindset and Entrepreneurial A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6), 89-104.
- Lee, K. H., & Ha, K. S.(2022). A Effects of Start-up Preparation, Start-up Support Policy And Accelerator Support on Business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4), 333-342.
- Lee, K. R.(2020). *Effect of Age of Representative on Financial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Focused*

- of the case of Policy Fund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 H.,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37-150.
- Nam, J. M., Chun, B. J., & Park, J. W.(2013). Success Factors of Start-ups: An Empirical Study. *Human Resource Management*, 20(5), 27-43.
- No, U. K., Jung, S., & Hong, S. H.(2014).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Delinquenc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Determinant. *Studies on Korea Youth*, 25(4), 211-240.
- Oh, J. W., Lee, D. H., & Kang, J. K.(2015).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Venture Prepa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Period of Venture Prepa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67-80.
- Oh, S. H., & Ha, K. S.(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143-157.
- Park, J. B., Yang, Y. S., & Kim, M. S.(2020).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285-301.
- Park, J. H., & An, T. U.(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39-47.
- Park, J. S., & Kim, J. T.(2019). A Study on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Business Continuity of the Store.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7(3), 19-37.
- Park, J. W., & Kang, M. S.(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icro Enterprise Startup Prepa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Korean Business Review*, 9(3), 31-46.
- Park, M. H., & Chung, Y. S.(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rvival Probability of Self-Employment Startups at older ages. *Social Welfare Policy*, 38(4), 165-189.
- Seo, M. G., & Park, H. S.(2017).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Entrepreneurship, the Requirements for the Maintenance on Financi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Small Business Owner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3), 116-148.
- Song, K. S.(200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in Korean Business Incubator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3(1), 71-103.
- Song, K. S.(2015).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CEO's Start-up Environment on Fear of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Failure.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5(2), 393-407.
- Statistics Korea(2022.07.26.). *May, 2022 Result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dditional Survey on the Elderly*. Korea policy briefing, Statistics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211>.
- Ryu, S. J., & Yang, H. S.(2016).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Types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Start-up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106-121.
- Yang, H. B., & Kim, J. H.(2022a).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senior entrepreneurship: focused on promoting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for baby boomers. *iKITE Industrial Economics Issue*, 136(2022-10), 1-12.
- Yang, H. B., & Kim, J. H.(2022b). *Current status and future agenda for senior entrepreneurship: focused on promoting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for baby-boomer generation*.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 Yang, K. A., & Ha, K.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ial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45-55.
- Yoo, S. D., & Choi, K. D.(2015). Research on the CBI, Een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omotion - Based on Finland Bridge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1-10.
- Zhang, T.(2008). *Elderly Entrepreneurship in an Aging Us Economy It's Never Too Late*.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ech Start-up Preparation of Middle-Aged Entrepreneurs*

Sungpyo Hong**

Minhee Kim***

Abstract

Careful preparation for a start-up can lower the risk of failure and create a successful business model. However, there are still challenges for middle-aged entrepreneurs, as start-up services and policies are often not readily accessible or fully utilized. Despite active research on middle-aged start-ups, previous studies have not delved deeply into the demographics of start-up preparation and various preparation behaviors.

In response to this, a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which start-up support services middle-aged entrepreneurs use, and how start-up preparation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is. Data from 324 middle-aged tech start-up owners, based in Seoul and who started their businesses within the past 7 year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middle-aged entrepreneurs had moderate start-up preparation, with the greatest focus on the preparation period and the least focus on start-up educ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three groups of start-up preparation types among middle-aged entrepreneurs: "Overall Tribal Type," "Lack of Start-up Education Type," and "Comprehensive Preparation Type." BCH was performed on start-up satisfaction, start-up competence, fear of failure, access to start-up services, and support needs for middle-aged entrepreneurs based on the preparation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Tribal Type" had statistically lower start-up satisfaction, competence, and service accessibility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Meanwhile, "Comprehensive Preparation Type" had a statistically lower fear of failure than the other types. "Overall Tribal Type" also had lower accessibility to middle-aged start-up services. All types had a high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upport for specialized middle-aged start-up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support for middle-aged entrepreneurs. This could include expanding support projects to enhance their level of preparation,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based on their level of preparation, and improving th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start-up support services for middle-aged individuals. Additionally, specialized education that add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individuals should be provided.

KeyWords: Middle-aged Entrepreneurs, Type of Start-up Preparation, Start-up Preparation, Start-up performance, Latent profile analysis

* This paper used data from 「50+ Generation Work and Activities in the Start-up Ecosystem and Policies to Support Start-ups」 of Seoul 50 Plus Foundation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pcareer@catholic.ac.kr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Vocational Edu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nhh@naver.com